

환경이 파괴되면 우리 생명도 위험하다

‘녹색의 전화’ 대표

박영숙

여의도 여성 백인화관 2층에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 상담실을 열었다.
전화번호는 784-2003. 4. 지난 홍수 때는 평민당 수해대책 위원장을 맡아
빈틈없이 자라기도 했다.



“자연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다.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은 자연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연의 품 속으로 되돌아간다. 자연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목적이다. 따라서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훼손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생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의 친구들’ 창립취지문에서—

최근 들어서 부쩍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보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쓰레기 매립, 산업폐수, 공해방지시설 등등 한 두가지 환경관련 용어들을 모르는 국민이 없을 정도이다.

그만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팔당호 준설문제로 작년 수도물 파동처럼 온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고, 서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유조선의 기름유출로 어민들이 생존의 터전을 잃고 시름에 잠겨 있다. 전 국토가 산업폐기물 매립 반대와 골프장 건설 반대 등의 주민 시위로 떠들썩하다. 게다가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문제 또한 커다란 활자로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바야흐로 환경오염에 의해 전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고, 모든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들이 있어야 하겠다.



생활협동조합 등 많은 여성, 시민단체들이 환경보전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환경오염이란 환경질(Environmental Quality)의 오염이다. 환경질의 오염은 산불이나 화산 폭발 등 자연적 현상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으나 주로 인간활동과 그 부산물에 의해서 파생된다. 우리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폐수, 대기오염물질 그리고 각종 유독화학물질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다. 환경질의 오염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의 균형과 질서가 파괴된 비정상적인 상태를 곧 환경오염이라고 말한다.

환경오염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접근방법에 따라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딱 한 가지 원인이라고 규정하기 어렵게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과학기술의 남용과 편리한 것만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생활양식 그리고 자본의 극대 이윤 추구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즉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겨온 서양의 자연관과 결합된 과학기술 만능주의가 환경을 수탈한 나머지 환경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역작용이 일어나게 되었고, 산업화 이후 지속되어온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생활양식이 자원고갈과 함께 대량의 폐기물 배출로 우리 생명의 터전을 파괴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을 위한 효율과 편리만을 추구해온 과학기술 만능주의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감수해야 한다는 성장 위주 경제정책의 부산물에 의해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동시에 인류 멸망에의 덧을 놓은 결과가 된 것이다.

우리가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논의와 반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환경은 일단 한번 오염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고, 심하면 그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각증상이 없이 은밀히 진행되다가 한계치에 이르면 어느날 갑자기 가시화되어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게 한다.

또 한가지는 프레온 가스에 의한 오존층 파괴나 산성비에 의한 생태계 파괴, 체르노빌 사건에서와 같은 방사선 오염 등 한번 발생하고 나면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어린 아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1952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스모그사건' 때에도 사건발생 후 5일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은 60년대 말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 발표 이후라 생각된다. 40여년 전부터 생성되어왔고, 지난 40여년동안 균형을 유지해왔던 지구가 급격한 자원 소모에 의하여 앞으로 1백년 이내에 모든 자원이 고갈되고, 생화화적인 순환이 급격히 변화되어 결국은 멸망하게 되리라는 이 보고서는 참으로 큰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이후 유엔도 1972년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도 70년대 말 교회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생명운동'이란 이름으로 환경보전운동이 시작되었는데, 현재에는 공해추방운동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자연의 친구들, 한살림, 함께하는



사망한 4천여명이 주로 어린이와 노인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행해질 때 비로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단지 오염발생 이후의 공해단속 차원의 소극적 대책이 아니라 환경보존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경제적인 면도 발생 이후보다 발생 이전의 예방이 더 비용이 절감된다고 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도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비옥한 토양을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제는 수도물조차 마음대로 마시기 어렵고, 도시의 서민과 노동자, 농어민 할 것 없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금속과 유독물질에 몸을 망치고 있다. 울산과 온산공단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온산병'이라는 새로운 병명을 만들었고, 상봉동 연탄공장 주변에 살던 주부 박길래씨는 주민 진폐증으로는 세계 최초를 기록하게 되었다. 또 얼마전에는 원전근무 노동자의 부인이 무너아를 낳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거기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문송면 수은중독사건, 고상곡씨의 카드뮴 중독사망, 원진레이온 공장 노동자들의 이황화탄소 중독사건 등등 너무도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이 작업환경관리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이른바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어 이 또한 전세계적으로 으뜸이다.

이제 환경오염문제는 우리 생활 깊숙히 스며들어 조금씩 우리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환경문제가 심각해져 가는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실천이 미흡한 것 같다.

나는 무엇보다도 지난 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정책 속에서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해온 대기업들의 반사회적 기업윤리를 비판하고 싶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는 총 투자액의 0.3~0.4%에 불과해 일본이나 미국의 1/30~1/4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형편으로 아마도 각 기업들은 공해방지 시설을 가동하는 것보다 벌금을 무는 것이 더 이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논의와 반성을 해야 하는 이유는 환경은 일단 오염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고, 심하면 그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각 증상이 없이 은밀히 진행되다가 어느 한계치에 이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시화되어 즉각적인 대처를 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당국의 의지와 대책마련은 미흡하기 짝이 없어 그저 어떤 일이 발생할 때야 비로소 00비상대책회의니 하며 발표하는 정도다. '혹시나'하면서 기대를 걸다가도 '역시나'하며 체념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환경관련 업무는 15개 부처로 분산, 다원화되어 있다. 막강한 경제부처 사이에서 그에 비해 위상이 낮은 환경처가 환경보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거기다 환경부문 예산도 성장위주, 개발위주 경제정책에 밀려 보잘 것 없어 밀려드는



환경보전 업무를 담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각종 환경관련 자료나 정보, 조사결과 등을 공개화하지 않고 독점, 은폐하려는 관료주의, 편의주의적인 행정운영도 정부의 환경정책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각과 개선노력도 아주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어쩌다 정부당국이 주도하는 자연보호 캠페인이 매스컴에 부각될 때마다 막연히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구나 하고 느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스스로 자제, 실천하고 환경파괴를 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발, 감시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환경운동단체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우리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는 에너지와 물자를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머리예다 무쓰나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오존층의 파괴를 막을 수 있고, 주방에서나 세탁시 합성세제 대신 비누를 쓰면 수질오염을 줄일 수 있다. 환경문제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이다. 따라서 비록 작은 일들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해나갈 때 우리 환경도 되살릴 수 있다.

우리들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을 갖게 될 때 더



예를 들어, 머리예다 무쓰나 스프레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 오존층의 파괴를 막을 수 있고, 주방에서나 세탁시 합성세제 대신 비누를 쓰면 수질 오염을 줄일 수 있다. 환경 문제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이다. 비록 작은 일들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해나갈 때 우리 환경도 되살릴 수 있다.

한발 나갈 수 있다. 즉 우리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에 의한 오염유발보다는 중화학공업에 의한 산업폐수나 폐기물에 의한 오염은 더 유독하여 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한다. 따라서 공해배출업체에 대한 관리, 감시와 함께 공해저감형, 자원보존형, 자원재생형의 제품 생산을 각 기업에 요구하고, 그 기업을 지원해 주는 일도 우리 소비자들이 할 일이다.

다음은 '자연의 친구들' 회원들이 만든, 환경보전을 위하여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일들이다. 쉬운 일부터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씩 실천해 보자.

1. 산에 가서 청소하는 습관을 기르며 자기 쓰레기는 도로 가져온다.
2. 냇시터에서 밑밥을 던져넣지 않으며 음식찌꺼기를 버리지 않는다.
3. 의복은 유행에 둔감하게 입으며 자주 드라이클리닝하지 않는다.
4. 골프보다 정구, 탁구, 수영 등을 하고 어린이도 전자, 전기오락보다는 연날리기, 팽이치기, 모양맞추기 등 자연적인 놀이를 장려한다.
5.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다.
6. 화학조미료를 쓰지 않으며 가공도가 적은 식품을 이용한다.
7.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공해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산업폐기물 역시 적절하게 처리한다.
8. 축산폐수는 정화시설을 거쳐 방류시키고 농촌에서도 생활하수를 적절히 처리한다.
9.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일체의 오염발생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일반 하천이나 호수에서도 세차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잔디를 쓸모있게 잘 관리한다.
11. 야생식물을 잘 보호하고 바위, 토양 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12. 농가나 교외에 집이 있을 경우 퇴비장을 만들어 사용한다.
13. 깡통을 연결하는 플라스틱 링은 꼭 끊어서 지정된 쓰레기장에 버려 해양동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14. 열대우림의 보호에 협력한다.
15. 뒷뜰에 야생동물이 설 곳을 만든다.
16. 고무풍선을 날려보내지 않는다.
17. 집, 거리, 빈터, 산과 들에 나무를 많이 심어 국토를 푸르게 가꾼다,
18. 가정에서 자녀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19. 건전한 시민으로의 고발정신을 가진다.
20. 환경에 관한 용어, 법규들을 익히도록 하며 우리가 알고있는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을 이웃에게 알리고 실천한다.
21. 환경보전단체에 가입하여 이러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준다. **ㄹ**

□사진/김문권 기자